

장성군 '숲도 가꾸고 땀감도 나누고'

군, 겨울철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 일석이조 효과 나무 부산물 200t 모아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

장성군이 '사랑의 땀감 나누기'를 통해 숲도 가꾸고 땀감도 나누는 일석이조의 군민행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군은 올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나무 부산물 200t을 따로 모아 가정에서 사용하기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한다.

전달된 나무 부산물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땀감으로 쓰여지며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 생계지원자 등 겨울철 난방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 군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홀로 계신 노인의 편의를 위해 85대의 화물차를

지원, 땀감을 각 가정까지 배달한다.

땀감을 지원받은 주민들은 "기름값이 많이 올라 난방비 걱정이 많았는데 집까지 배달해준 땀감 덕분에 걱정을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 나무를 가꾸거나 불필요한 나무를 솎아내는 사업으로, 장성군은 올해 1300ha 임야에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을 추진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숲 가꾸기 사업은 공익적 가치가 높아 주민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며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한 땀감 나누기를 통해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작지만 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올해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숲가꾸기



장성군은 올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나무 부산물 200t을 따로 모아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지역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장성군 제공)

산림자원조사단, 칠당굴제거단 등 31명을 채용했으며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산림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에도

16억여원을 투입해 1015ha에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군, 내년 현안사업 국비 1701억 확보

동면~송광간 국도 시설개량 10억원 등 40억 신규 반영

화순군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총 84건의 지역현안 사업비 1701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8일 끝난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화순치유숲단지 조성사업 5억원, 동면~송광간 국도 시설개량 10억원, 동면~주암간 국도 시설개량 10억원 및 다국 해해위협지구 정비 12억원 등 총 40억원이 신규 반영 또는 증액됐다.

특히 198억원 규모의 화순치유숲단지 조성사업은 화순전담병원 인근에 의료,

건강 및 참살이 숲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화순 동면~순천 송광간 10억원과 화순 동면~순천 주암간 60억원의 국도 시설개량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전남 동남부 권과의 연결 간선도로망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화순을 향정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총 180억원의 사업

비로 시작하고,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77억원, 김성천 재해위협지구 정비사업 138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화순백신특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213억원 중 11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정진없이 달려왔는데, 이처럼 많은 성과를 거둬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며 "새로운 자세로 다양한 2020년도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해 올해보다 더 활기차게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아름다운 장성 이야기' 사진전 장성 사진가협회 20일까지 개최

장성군 사진가협회는 20일까지 장성군청 현관 로비에서 '아름다운 장성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시회는 옐로우시티 장성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숨은 명소를 알리기 위해 열렸으며, 회원 17명이 지난 1년 동안 장성의 구석구석을 촬영한 사진 34점이 전시된다.

사진에는 황룡강과 측령산, 백양사 등 장성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지부터 고즈넉한 마을 어귀, 소담한 꽃송이에 이르러까지 장성 곳곳의 아름다운 순간을 담았다.

장성군 사진가협회는 2012년 창립해 군 관광사진 촬영 프로젝트와 장성8경 관광달력 제작을 추진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장성군 SNS 서포터즈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장성의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동안 장성군 사진가협회장은 "올해 초부터 '아름다운 장성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진예술포럼을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숨은 명소들과 옐로우시티 장성의 아름다움을 사진 전시와 함께 화려한 영상으로도 만나 볼 수 있으니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 남면을 '가사문학면'으로 하자

군, 행정구역 명칭 변경 추진

한국 가사문학의 보고(寶庫)인 담양군 남면을 '가사문학면(面)'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은 방위에 기초한 일제시 지명인 '남면'을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가사문학면'으로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사흘 간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19세 이상 남면 주민 772명 대상으로 명칭개명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9명(72.4%)이 찬성, 201명(24%)이 반대했고, 무효는 12명(1.6%)으로 집계됐다.

명칭 변경 추진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일 명칭 변경 건의서를 군에 정

식 제출할 예정이다.

군은 명칭 변경 건의서가 접수되면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관련 근거에 따라 행정부, 표지판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 가사문학면 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가사문학면 명칭 변경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면의 가치가 담양의 브랜드 못잖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면은 면적 43km²에 인구수 1368명(699가구)으로, 담양 13개 읍·면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적지만 소재원과 식영정, 환벽당 등 가사문학 유산과 명승, 기념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로 경관을 꾸민 메타프로방스. (담양군 제공)

크리스마스 시즌 '빛의 마을' 변신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일원서 '산타축제' 개최

크리스마스철을 맞아 담양이 빛의 마을로 변신한다.

담양군은 14일부터 30일까지 담양을 원도심과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제2회 담양산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산타와 나누는 담양 겨울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다.

축제 기간 메타프로방스에는 6m 높이의 대형 산타와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트리 경관 터널 등 동화 속 풍경을 떠올리는 야간 경관 조명이 빛을 밝힌다.

원도심 중앙공원에도 트리과 대나무 조형 터널 등이 빛나는 크리스마스 정원이 조성된다.

캐럴 버스킹과 담빛라디오스타, 녹색산타 이벤트 등 공연과 행사도 함께 열린다.

겨울 간식, 크리스마스 소품, 공예품 등 크리스마스 관련 추억 채움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해동주조장 일원에서 열리는 '해동 빛의 정원' 행사에는 7080 음악다방, 빛의 정원 야외전시, 비주얼 아트 등이 선보인다.

담주다미담예술구에서는 청년 상인과 함께하는 '담빛 사이클링' 행사를 진행해 산타축제를 보기 위해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담양 전역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산타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담양산타축제가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여행하기 좋은 담양이라는 새로운 겨울관광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완공

화순군은 화순을 중심지인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을 완공,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

복지회관은 지난해 11월에 착공해 올해 11월에 공사가 완료됐다.

연면적 755㎡으로 지상 3층 규모이며 광산근로자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시설과 휴게시설,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을 갖춘 시설로 다목적 전용공간이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준공식에 참석한 구충곤 화순

군수는 "화순의 경제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화순군 경제는 나아졌지만 군에서 보답하게 없어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했다"면서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이 광산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설 66주년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